

전자정보산업 민간 협의회

— 전자정보산업의 수출증대 및 경쟁력 강화방안 —



본

회는 지난 6월 18일 대한상의클럽에서 최흥건 산업자원부차관을 초청, 전자업계 주요대표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정보산업민간협의회」를 개최하고, 전자정보산업의 수출증대 및 경쟁력 강화방안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최근 우리 경제가 외환부족, 금융불안, 내수침체 등으로 전반적인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우리 주력산업인 전자산업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정부와 업계가 이러한 협의회를 통해 중지를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자산업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본고는 이 보고내용의 주요내용을 수록하였다.

차

레

I. 전자정보산업의 위상

II. 전자정보산업의 최근 동향

1. 수출입 동향
2. 국내 판매 동향
3. 기업 부도 현황
4. 향후 전망

III. 위기극복을 위한 업계의 노력

1. 수출 증대를 위한 신제품 개발 및 시장개척 확대
2.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품개발 및 원가절감
3. 구조조정 및 국내외 기업간 전략 제휴
4. 고용안정 및 노사화합

VI. 21세기 비전

V. 건의사항

I. 전자정보산업의 위상

전자정보산업은 전제조업 생산의 22%, 고용의 17%를 차지하고, 수출은 총수출의 30%의 비중을 차지하는 성장선도산업('97년 기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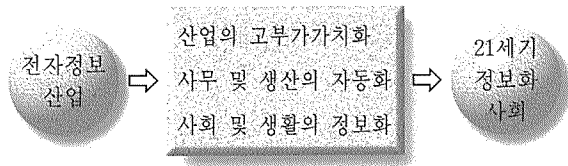
〈전자정보산업의 위상〉

구 분		'90	'95	'96	'97
생산 (십억원)	제조업	52,351	77,134	82,875	88,032
	전자산업	7,465	13,720	15,903	19,708
	비중(%)	14.3	17.8	19.2	22.4
수출 (억불)	총수출	650	1,251	1,297	1,362
	전자수출	177	436	412	414
	비중(%)	27.2	34.9	31.8	30.4
고용 (천명)	제조업	3,138	2,954	2,844	2,723
	전자산업	477	538	473	455
	비중(%)	15.2	18.2	16.6	16.7

주) 생산은 부가가치 기준

자료: 통계청 등

또한 전자정보산업은 21세기에 모든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사무 및 생산의 자동화, 사회 및 생활의 정보화를 이끌어갈 핵심 산업이다.



II. 전자정보산업의 최근 동향

1. 수출입 동향

가. 월별 동향('98년 5월까지)

○ 수출은 163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하였다.

- 5월에는 3.1% 증가, 그러나 6월 이후는 엔화 급락 등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월별 수출 동향〉

구 분	'97년 연간	'9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추정)	'98년 누계
수출액(억불)	414	29	31	34	32	36	163
증감율(%)	0.5	-5.7	11.4	4.3	-6.5	3.1	-0.2

자료: 관세청

- 수입은 89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25.9% 감소하였다.
- 금년들어 경기불황에 따라 생산재인 생산용기기 및 부품과 소비재인 가전제품이 모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월별 수입 동향〉

구 분	'97년 연간	'9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추정)	'98년 누계
수출액(억불)	295	15	17	19	18	17	89
증감율(%)	7.1	-32.6	-12.4	-18.5	-27.4	-28.2	-25.9

자료: 관세청

- 무역수지는 74억불 흑자로 전년 동기 대비 32억불 증가하였다.
- 전자가 전체 무역수지 흑자에 45.9% 기여하고 있다.

〈년도별 무역수지 추이〉

구 분	'90	'96	'97	'98.5 (추정)
전체(억불)	-48	-206	-84	161
전자(억불)	73	136	119	74

주) 무역수지 통관기준 수출-수입

나. 품목별 동향

○ 호조품목 : 무선전화기(79.8%), 노트북 PC

(128.4%), 컴퓨터 HDD(61.8%), 컴퓨터용 브라운관(25.6%) 등으로 이는 대부분 고부가가치의 신개발품목이다.

- 부진품목 : 칼라TV(-24.3%), VCR(-39.2%), 오디오(-15.4%)는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으로, 자기테이프(-23.0%), 컴퓨터 모니터(-7.3%)는 수출 단가 하락으로 부진하다.

〈품목별 수출 동향〉 (단위:백만불)

구분	'97년		4월 누계			
	연간	증감율(%)	'97년	'98년	증감율(%)	
가전 제품	칼라TV	1,149	-31.3	575	435	-24.3
	VCR	735	-38.5	285	173	-39.2
	오디오	1,490	-10.3	487	412	-15.4
	▲전자렌지	691	-10.4	241	251	4.0
	▲냉장고	586	18.5	179	215	20.5
산전 제품	▲노트 PC	221	38.9	10	31	128.4
	컴퓨터모니터	3,105	-12.2	1,078	999	-7.3
	▲컴퓨터HDD	508	181.9	156	252	61.8
	▲유선전화기	144	-16.8	43	53	22.5
전자 부품	▲무선전화기	853	89.9	212	381	79.8
	자기테이프	859	-20.0	295	227	-23.0
	CPT	1,150	4.8	340	295	-13.0
	▲CDT	1,037	30.0	283	356	25.6

주) ▲표시는 수출 증가 품목 자료:관세청

다. 지역별 시장동향

- 증가 지역 : 미국(9.1%), 서구(4.4%), 중동(3.2%)
- 감소 지역 : 일본(-15.6%), 중국(-14.4), 아세안(-8.7%)은 외환불안 및 경기 불황 등으로 동구(-25.5%)는 고관세에 특소세 부과 등으로 저조하다.

〈지역별 수출 동향〉 (단위:백만불)

구분	'97년		4월 누계		
	연간	증감율(%)	'97년	'98년	증감율(%)
▲미국	10,808	-8.1	3,203	3,494	9.1
▲서구	7,344	5.4	2,395	2,504	4.4
일본	3,974	-3.9	1,227	1,035	-15.6
중국	1,404	32.6	460	394	-14.4
아세안	7,626	11.7	2,323	2,120	-8.7
동구	1,156	-34.1	419	312	-25.5
중남미	2,080	-0.4	653	617	-5.5
▲중동	993	1.8	343	354	3.2
아프리카	622	-1.7	191	175	-8.4

주) ▲표시는 수출 증가 지역 자료:관세청

라. 수출부진요인

① 주력제품의 수출단가 하락

	'97년 12월	'98년 5월
- VCR(4Head)	\$ 115	→ \$ 100 (-13.0%)
- 모니터(15")	\$ 299	→ \$ 271 (-9.4%)
- CDT(15")	\$ 90	→ \$ 50 (-44.4%)
- CDROM Driver(32X)	\$ 62	→ \$ 45 (-37.8%)
- HDD(3.4G)	\$ 150	→ \$ 115 (-23.3%)
- V/Tape	∅ 7.0	→ ∅ 6.0 (-14.3%)

② 전체수출의 30%를 차지하는 아세아 시장이 외환위기 등으로 침체되고 있다.

	'97년	'98년 4월까지
- ASEAN	: 11.7% 증가	→ 8.7% 감소
- 중국	: 3.5% 증가	→ 11.9% 감소

③ 미·EU 등 선진국들이 우리 상품 수출규제(A/D)를 강화하고 있다.

- 미국 : C-TV, CPT, DRAM 등 3개 품목
- E U : C-TV, MWO, Car CDP, DRAM, FDD, 콘텐서, FAX, 전자저울 등 8개 품목

④ 업체의 자금경색 및 고금리, 중소기업 담보력이 부족하다.

- 수출환어음 매입 : L/C베이스는 완화, D/A, D/P는 5월 들어 더 어려움
- 외상 수입 L/C 개설 어려움 지속
- 환가료 : '97년 11월(Libor+1%) → '98년 5월 (Libor+6%)
- 회사채 금리 : '97년 말(29%) → '98년 5월 말 (17.8%)

⑤ 고부가가치 제품 및 고정밀부품 개발이 저조하다.

- 고부가가치 및 고정밀 부품은 수출 호조(4월까지)
 - CDMA 휴대폰 : 381백만불(79.8% 증가)
 - 컴퓨터 HDD : 252백만불(61.8% 증가)
 - CDT : 356백만불(25.6% 증가)

※ 일본 및 대만의 사례

- 일본('97년)	
· 비디오프로젝터 및 모니터	: 12억불 (한국은 없음)
· 컴퓨터	: 52억불 (한국의 23배)
· 컴퓨터 주변기기 및 부품	: 100억불 (한국의 39배)
· 계측기기	: 27억불 (한국의 27배)
· Chip형 콘덴서	: 27억불 (한국의 9배)
- 대만('97년)	
· PC	: 65억불 (한국의 33배)
· 컴퓨터 부품	: 126억불 (한국의 10배)

○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 최근 급속한 절하

	'97년말	'98년 6월 15일	변동율(%)
· ¥/\$	130.5	146.0	11.9
· ₩/\$	1,695	1,433	-15.5
- 엔저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은 대일경합도, 일본 기업의 수출가격 인하 정도에 따라 상이

· 수출영향이 큰 품목 : C-TV, VCR, CD-ROM, FDD 등

· 수출영향이 작은 품목 : CDMA 휴대폰, 모니터, 노트북 등

○ 생산기지 해외이전에 따른 직수출이 감소되고 있다.

〈주요품목의 해외생산 비중〉 (단위 : %)

C-TV	VCR	냉장고	세탁기	전자렌지
44.0	55.0	42.0	30.0	47.6

자료:EIAK

2. 국내 판매 동향

○ 국내판매는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위축으로 대부분의 품목이 20~60% 감소하고 있다.

- 증가품목은 휴대폰(17.1%) 정도

○ 부진요인

- 가전제품 : 구매력 감퇴 및 소비심리 위축
- 산전제품 : 설비투자 부진 및 공공부문의 투자 축소, 연기
- 전자제품 : 기기수요 감소

〈품목별 내수 판매 동향〉 (단위:10억원)

구분	'97년		4월 누계			
	연간	증감율(%)	'97년	'98년	증감율(%)	
가전제품	칼라TV	914	-1.3	299	164	-44.9
	VCR	289	-14.6	105	51	-51.0
	오디오	527	-10.6	174	139	-20.2
	세탁기	565	-5.9	167	113	-31.8
산전제품	PC	1,063	-0.4	377	258	-31.5
	▲휴대폰	987	233.7	254	297	17.1
	프린터	337	-2.4	118	89	-24.5
	계측기	36	-18.3	12	5	-60.6
전자부품	브라운관	289	-1.7	84	50	-40.2
	콘넥터	129	4.3	42	34	-19.8
	자기테이프	199	38.3	73	50	-31.9

주) ▲표시는 증가 품목

자료:EIAK

3. 기업 부도 현황

○ 최근 경기침체와 자금난 심화 등으로 전자업계의 부도가 월평균 101개사로 전년 3배에 달하고 월평균 부도율은 1.2%(101개사/8,028개사)에 달하고 있다.

- 주요 부도 중견기업 : 해태전자(4,199억원), 태일정밀(4,509억원), 제일정밀(982억원), 큐닉스(1,606억원)

※ ()은 '97 매출액

○ 특히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중소판매대리점의 부도 및 사업 포기 속출, 전년의 8배에 달하고 월평균 폐업율은 5.4%(191개사/3,520개사)에 달하고 있다.

(단위:업체수)

구 분	'97년		'97년(1~4월)	
	월 평균	누 계	월 평균	누 계
전자제조업	38	458	101	405
판매대리점	25	300	191	767

자료:한국은행, EIAK

4. 향후 전망

○ 수출은 주종품의 단가하락, 엔화 약세 등으로 당초 수출목표인 482억불보다 낮은 430억불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 그러나 수입은 수요위축과 수입대체 국산화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되어 연말까지 270억불로 예상됨으로써 무역수지 흑자는 160억불 정도로 전망된다.

○ 내수는 현재와 같은 여건이 지속될 경우 평균적으로 30% 이상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III. 위기극복을 위한 업계의 노력

1. 수출 증대를 위한 신제품 개발 및 시장 개척 확대

○ 고부가가치의 유망 신제품 개발 촉진

중점 개발 품목	2000년 세계시장 규모
· DVD	47억불
· 디지털 TV	14억불
· 디지털 VCR	11억불
· 리튬이온 전지	32억불
· 동화상전화기 등	15억불

○ 국내외 전자전을 통한 시장 개척

- 한국전자전

· 전시업체 : 425개사
· 바이어 초청 : 5,000명 } 15억불 상담

- 해외 전자전 : 중소기업 공동관 설치, 비용분담, 시장 공동 개척

· COMDEX FALL

· 브라질 전자의료기기 전시회 } 4개 전자전에
· 독일 MEDICA 전시회 } 140개사 참여
· 홍콩 전자전

○ 수출 단가 하락 방지를 위한 업계간 협력 강화

- 대상품목 : 자기테이프 등 단가하락이 큰 5개 품목 중심

- 품목별 협의회 구성 : 시장 및 가격 정보교환, 대책 협의 등

2.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품개발 및 원가절감

○ 수급 기업간 협력을 통한 부품 개발

- 부품 구매 계획 설명회 : 220개사 참여

- 국산화 대상 부품 전시 : 휴대폰용 SAW필터

등 70개 부품

- 우수 개발 부품 콘테스트 개최 : '98년 9월
- 신개발 부품 특별 전시 : '98년 10월, 한국전자전
- 사이버 마케팅 체제 구축 : 진흥회, 6월 개설 (인터넷 및 PC통신망)

○ 업계 공동의 비용 절감 사업 추진

- 전자부품 표준화, 공용화
 - '98년 : 20개 품목 표준화 ('92년~'97년 5년간 250개 품목)
 - '98년 : 400억원 원가절감 목표
- 불용재고부품 및 장비할인판촉전 개최
 - '98년 3월 : 7,800개 품목대상 → 22억원 판매
 - 인터넷 및 PC통신망을 통한 상설판매체제 구축 : '98년말
- 폐가전제품 회수, 재자원화 사업 공동 추진
 - 가전 3사 : 515억원 투자('97년~'99년)
 - 중부권센터 완공, 영남 및 호남권센터 건설 추진

○ 전자산업 종합 정보망(EIAK-INS) 구축, 정보 제공

- 시스템구축 : 진흥회 1억원 투자('95~'97년)
- D/B개발 : 전자산업의 정책, 통계, 부품소싱, 수출시장, 기술 등 13개 분야
- 데이터 수록 : 현재 총 6만 8천건

600개사 대상 '97. 4월부터 서비스

3. 구조조정 및 국내외 기업간 전략 제휴

○ LG전자

- PC사업 IBM과 제휴(LG IBM)
- 캠코더, 오디오 사업 통합
- 인도 냉장고 공장 추가 투자계획 유보

○ 삼성전자

- 소형 가전사업 중소기업 이관
- 미국 자회사 SMS, IGT 등 매각
- 영국 가전공장 추가 투자 계획(7억6천만불) 유보

○ 대우전자

- 서비스부문 사업 별도 법인화(대우전자 서비스)
- 프랑스 SGS 톰슨사와 합작(디지털 고집적회로 개발)
- 디지털 피아노 사업 MBO방식으로 분리
- 인도네시아 종합가전공장 투자 전면 보류

○ 현대전자

- PC사업 분리(멀티캡)
- LCD분야 해외자본 유치
- 심비오스로직사 및 오디오사 매각

○ 기타업체

- 펜 텍 : 모토로라와 CDMA 휴대폰 사업 제휴
- 삼보컴퓨터 : 프린터 사업 부문 매각
- 호 성 : 자기테이프 사업 매각 제휴 추진
- 메디슨 : 미 ATL사와 초음파 영상진단기 생산 제휴

4. 고용안정 및 노사화합

○ 고용안정 :

- 전자업계는 이미 수년전부터 생산자동화, 생산기지 해외 이전, 중소기업품목의 계열사 이전 등 구조조정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옴으로써 현재까지 대규모 실업 등의 큰 파문이 없었고

(계열사 또는 협력업체로 사업 이관 사례)

- 삼성전자 : 소형가전사업
- LG전자 : 산업용 모터 사업
- 현대전자 : 정보시스템 부문
- 대우전자 : 서비스 부문

- 또 최근에는 사내 조직의 별도 법인화, MBO, 즉 퇴직자를 통한 하청 생산, 벤처 기업의 창업을 장려하고 노사합의 하에 인건비 및 복리비를 감액하여 자연감소인원 미충원, 희망퇴직제 시행 등을 통해 정리해고를 최대한 회피토록 노력해야 한다.

(사내 조직의 별도 법인화 사례)

- 삼성전자 : 물류부문 → 토로스(주)
- 대우전자 : 디지털 피아노사업 부문 → (주)벨로체
- 현대전자 : PC사업 부문 → (주)멀티캡

○ 노사화합

- 노사 모두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합의
- 금년들어 현재까지 분규가 없는 노사화합의 모범산업
- 올해 단체협상도 대부분 순조롭게 시행(50대 업체 점검)
- 일부 업체는 무파업 선언, 단체교섭권 이양

IV. 21세기 비전

○ 세계 전자시장 : 1997년 9,300억불 → 2010년 1조4,200억불

- 성장 주도 분야 : 컴퓨터 및 S/W, 이동 및 위성통신, 디지털, TV 등 멀티미디어, 광전자, 반도체 등

○ 재도약 전략

- 기술 경쟁력 확보
 - 컴퓨터, 통신, 멀티미디어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 고정밀 부품 및 소재 개발로 경쟁력 강화

- 제조장비의 개발 및 자동화로 품질 및 생산성의 일류화 지향
- 글로벌 경영체제 확립
 - 국내외 기업간 자본, 시장, 기술의 전략적 제휴 추진

○ 한국의 위상(2005년)

- 생산액 규모 : 1997년 591억불 → 2005년 929억불
- 한국의 위상 : 1997년 세계 제4위 → 2005년 세계 제3위 가능

V. 건의사항

1. 수출업계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대한 부가세 징수제도 개선
- 재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경감제 도입

2. 현 수출 주종품의 경쟁력 강화

- 고부가가치제품
 - 고정밀부품소재
 - 고성능 제조장비
- 개발자금 지원 확대

3. 차세대 수출 유망산업의 발전환경 조성

- 디지털TV 등의 수요 창출
- 컴퓨터 최신 CPU에 대한 관세율 인상 억제
- SVR에 대한 EU의 세번 변경을 통한 관세율 인하

4. 내수불황 타개

- 생필품화된 가전제품의 특소세 인하
- 전자제품에 대한 폐기물 예치금제 개선